



강북구의회
GANGBUK-GU DISTRICT COUNCIL

언론 보도

2010년
10월19일
(화요일)
- 1 면 -

서울포스트

강북신문

강북구의회 제145회 정례회 폐회

각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처리



강북구의회(의장 유근성)는 12일 제 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월 5일부터 8 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145회 정례회를 폐회했다.

이번 제145회 정례회에서는 2009회

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 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 인(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문화 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 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 정조례(안)과 운영·행정보건·복지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하였다.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

비 지출 승인과 관련된 '세입 결산액 총 4,172억 7,087만원에서 세출 결산액 총 3,419억 6,662만원을 차감한 753억 424만원'을 2010회계연도로 이월하였다.

이날 상정된 조례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인 '삼각산문화예술회관' 명칭이 주민에게 보다 친숙하고 친근감 있는 '강북문화예술회관'으로 변경되었다.

또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따라 세입징수에 기여한 공무원과 탈무세원, 부당 환급·공제 자료를 제공한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과 지급방법 등의 규정을 개정하였다.

또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는 11월 29일 1일간, 행정보건·복지건설위원회는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강북구의회 제145회 정례회 폐회

12일 8일간 일정 마무리...행감 계획서 승인의 건 처리도

강북구의회(의장 유근성)는 12일 제 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월 5일부터 8 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145회 정례회를 폐회했다.

이번 제145회 정례회에서는 △2009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 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운영·행정보건·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하였다.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

비 지출 승인과 관련 '세입 결산액 총 4,172억 7,087만원에서 세출 결산액 총 3,419억 6,662만원을 차감한 753억 424만원'을 2010회계연도로 이월하였다.

이날 상정된 조례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인 '삼각산문화예술회관' 명칭이 주민에게 보다 친숙하고 친근감 있는 '강북문화예술회관'으로 변경되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따라 세입징수에 기여한 공무원과 탈루세원, 부당 환급·공제 자료를 제공한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과

시달람법 등의 규정을 개정하였다.
또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는 11월 29일 1일간 일제로, 행정보건·복지건설위원회는 11월24일부터 11월30일 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하여 행정 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강북신문

서울포스트



강북구의회(의장 유근성)는 12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동안 강북구의회 내 마련된 교육장에서 구의원들을 대상으로 트위터정보화 교육을 실시했다. 실시간 정보 파급효과가 큰 트위터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구민들과의 소통하는 구의원으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민생 현장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를 빠르게 파악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날 교육은 ▲트위터 이해하기 ▲트위터에 뛰어들기 ▲트위터 도사되기라는 내용으로 3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강북구 의회 트위터 교육 실시



강 북 구 의 회 (의장 유근성)는 10월 12일 14시부터 17시 까지 3시간동안 강북구의회 내 마련된 교육장에서 구의원

들을 대상으로 트위터정보화 교육을 실시했다.

실시간 정보 파급효과가 큰 트위터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구민들과의 소통하는 구의원으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민생 현장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를 빠르게 파악하기 위하여 마련했다. 이날 교육은 ▲트위터 이해하기 ▲트위터에 뛰어들기 ▲트위터 도사되기라는 내용으로 3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강북구의회
GYEONGBUK DISTRICT COUNCIL

언론 보도

2010년
10월19일
(화요일)
- 2 면 -

강북신문

주민과 함께 하는 구정질문·행감준비 돌입

구본승 구의원, 입장 밝혀



구본승 강북구의회 의원과 민주노동당 강북구위원회는 강북구청을 평가하고 감정을 표기하고 감정을 시정하기 위해 진행되는 2010년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주민들과 함께 진행할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12일, 현장에 기반한 주민참여와 주민자치를 만들기 위해 강북구 관내 시민사회단체에 '참여 제안문'을 발송했다.

제안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행정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는 '구정질문' 의제를 10월15일까지, 소관 행정사무 실태를 파악하고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을 요구하는 '행정사무감사' 위원회별 자료제출 요구 의제를 10월 20일까지 이메일로 받아 이를 최대한 반영한다는 내용이다.

구본승 구의원은 "오직 주민편에서 일하겠다는 선거 때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주민들의 소중한 목소리를 담아내겠다"며 "주민과 함께 하려는 새로운 시도가 꽃피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포스트

강북문화예술회관으로 명칭 바뀐다

이백균 의원 ... '지난 6~7년 동안 주민들이 불편했다'



'삼각산 문화예술회관'이 '강북문화예술회관'으로 명칭 바뀐다

2001년 준공되어 2005년까지 강북구

민회관으로 불리워졌고 2005년 7월 설문조사 후 구청장 발의로 삼각산 문화예술회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지금까지 불리워졌던 삼각산문화예술회관 명칭이 또 바뀐다.

지난 8일 오전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의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

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놓고 논의를 펼쳤다.

이백균 의원은 "강북구민회관에서 삼각산문화예술회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6~7년 동안 주민들이 불편했다"고 말하고 주민들의 혼란을 해소시켜야겠다는 취지에 조례를 개정해서 올리게 되었다면서 "삼각산이라는 명칭은 공식명칭이 되지 않은 상태로 구민회관을 삼각산문화예술회관으로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또 전 구청장도 문화예술 쪽에 관심이 많았으며 "21세기 세계화 추세에서 문화예술 쪽으로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삼각산문화예술회관을 강북문화예술회관으로 명칭을 바꾸면 더 좋을 것"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최선 의원은 "더 이상 논란거리가 없는 명칭으로, 다시는 변경되지 않을 만한 명칭으로 깔끔하게 정리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원안대로 의결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2일 145회 제2차 본회의서 통과 되어 강북구청의 공포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2005년 삼각산문화예술회관으로 명칭 변경 시에는 건물 간판 및 지주간판 및 표지판 교체 등에 3,100만원이 소요 되었지만 이번 명칭변경에는 지주는 그대로 사용하고 표지의 글씨만 바꾸게 되어 큰 예산을 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북신문

삼각산 빼고 강북문화예술회관으로

이백균의원 제안으로 조례 개정해 명칭 변경

그동안 강북구민들에게 불리워지던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앞으로는 '강북문화예술회관'으로 불리우게 된다.

강북구의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상정해 행정보건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12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조례는 이백균 의원(민주당)이 제안한 것으로 이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강북구를 상징적으로 강북구를 대표하는 회관으로 구민의 위한 장소로서 삼각산문화예술회관보다는 자랑스러운 우리구의 명칭을 사용하여 보편성이 있으며 주민에게 친숙하고 친근감이 있는 강북문화예술회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은 삼각산문화예술회관이라는 명칭에 '강북'이라는 표시가 없어 강북구를 상징하는 시설로서의 이미지와 대외 인지도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있다는 점이 많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이백균 의원

특히 민선3기 김현종 구청장 시절 강북구민회관에서 삼각산문화예술회관으로 바뀌면서 주민들이 많은 혼란을 겪어왔던 명칭이다.

현재 강북구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중인 삼각산문화예술회관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문화체육 복합시설물로 수영장, 헬스장, 다양한 문화교실 및 대공연장을 갖춘 100여개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구민 모두가 즐겨찾는 지역의 대표적인 건강증진의 장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아울러, 각종 문화강좌와 전시실, 행복실, 독서실, 인터넷 카페, 연회장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수준 높은 뮤지컬과 영화 등 다양한 공연 행사가 가능한 700여석의 대공연장을 갖추고 있는 곳이다.

강북신문

'소음·인도확보 민원해결에 앞장설'

김도연 의원, LH공사에 시정요구해 조치 나서

강북구의회 김도연 의원(민주당)이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소음 해결과 인도확보를 위한 노력을 펼쳐 '생활 정치인'의 면모를 보였다.

민주당 비례대표의원으로 강북구의회에서 초선원으로 활동중인 김 의원은 최근 변동에 신속중인 변동 5단지북지관 신축현장의 소음과 먼지, 그리고 통행로가 없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민원을 받았다. 변동 5단지 아파트 내에 신축중인 북지관 건립공사에 따라 인근 상인들과 아파트 주민들이 공사 소음으로 제대로 생활을 못하고 먼지가 날려 불편을 겪는 한편 통행로까지 공사 지체가 나와 주민들이 통행하기가 불편하고 건물을 우회해 돌아와야 하는 불편까지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아이가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고 장애인과 나이많은 어르신들이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하다고 호소할 정도"라며 "많은 주민들이 민원해결을 요구해왔던 민원"이라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곧장 LH공사에 이같은 민원사실을 밝히고 시정을 요구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LH공사 관계자는 12일 김 의원에



김도연 의원

게 "연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는 데 현재 골조 공사를 위해 소음이 커진 상태지만 골조 공사가 마무리되면 소음은 해결될 것"이라며 조금만 주민들이 참아달라고 주문했고 분진문제 또한 공사관계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또 공사를 위해 통행로까지 전면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해 왔으나 기존 통행로부분은 주민들의 통행안전을 위해 다시 확보해줄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조치에 대해 김도연 의원은 "소음 등 민원에 대한 LH공사의 해명에 대해 사과문이나 안내문을 공사장 주변에 게시해 주민들의 이해를 구해달라고 요구했다"며 "복지관 건립을 반대해온 주민들의 입장을 안다면 여러 가지 민원을 없애기 위해 LH공사는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북구의회
GANGBUK DISTRICT COUNCIL

언론보도

2010년
10월19일
(화요일)
- 3 면 -

서울포스트신문

주민과 함께 하는 구정질문·행감 준비

구본승 구의원 "주민 목소리 담아낼 계획" 입장밝혀



"2010년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주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본승 강북구의회 의원과 민주노동당 강북구위원회는 강북구정을 평가하고 감시하며 잘못된 행정을 시정하기 위해 진행되는 2010년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주민들과 함께 진행할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12일, 현장을 기반한 주

민참여와 주민자치를 만들기 위해 강북구 관내 시민사회단체에 '참여 제안문'을 발송했다.

제안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행정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는 '구정질문' 의제를 10월15일까지, 소관 행정사무 실태를 파악하고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을 요구하는 '행정사무감사' 위원회별 자료제출 요구 의제를 10월20일까지 이메일로 받아 이를 최대한 반영한다는 내용이다.

구본승 구의원은 "오직 주민편에서 일하겠다는 선거 때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주민들의 소중한 목소리를 담아내겠다"며 "주민과 함께 하려는 새로운 시도가 꽃이 피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동북일보

강북구게이트볼대회, '화합의 잔치'로 열려

선수단, 인근 주민들에게 국수와 파전 등 점심 대접

국민생활체육강북구게이트볼연합회(회장 김준경)는 지난 15일 오전 11시 반동5단지 게이트볼 전용구장에서 제16회 국민생활체육강북구청장기 게이트볼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박경수 구청장과 김용욱 강북구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구의원들과 오영식 민주당 강북갑지구당 위원장과 이수희 한나라당 강북을당원협의회 위원장, 김정중 시의원 및 생활체육 산하 각 종목별 단체장들과 선수들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개회식은 구청장 및 구의회의장 생활체육협의회장, 서울시게이트볼연합회장이 수여하는 유공회원 대상 표창수여식과 아울러 김준경 회장의 대회사, 박경수 구청장의 격려사, 내빈들의 축사 등으로 진행됐다.

김준경 회장은 대회사에서 "강북게이트볼연합회는 노약자와 장애인 회원들이 많아 게이트볼에 대한 관심과 협조로 발전을 거듭해와 그동안 전국대회 등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옛날의 영광을 다시 되찾는



▲박경수 구청장(맨 왼쪽), 오영식 민주당 강북갑지구당 위원장(왼쪽에서 세번째), 이수희 한나라당 강북을지구당 위원장(오른쪽에서 세 번째) 등이 게이트볼대회에서 시타를 하고 있다.

한편 오늘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경수 구청장은 격려사에서 "오늘 참석하신 선수들의 표정이 너무 밝고 좋다. 지난 일년 동안 꽃은 날씨 등으로 고생이 많았지만 오늘 다 날려버리고 화합으로 모두가 승리하는 대회가 되자"고 말했다.

또 김용욱 구의회 부의장은 구청과 의회가 강북구의 복지향상에 더욱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밝혔으며, 지역구의 오영식 이수의 위원장도 축사를 했다. 이후 구청장을 비롯한 관내 유지들이 시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경기가 시작됐다.

이날 행사에 선수단과 인근 주민들을 위해 국수와 파전을 대접했다. 또 국수나눔봉사회에서 약 200여명의 주민들에게 국수를 제공했다.

(김신규 기자 sfcmam87@hanmail.net)

강북신문



강북구청장기 게이트볼대회 개최식에서 내빈들이 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시타를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박경수 구청장, 김준경 회장, 오영식 위원장, 김용욱 부의장, 이수희 위원장, 이정식 회장 직무대행.

강북구청장기 게이트볼대회 15일 개최

김준경 회장, "화합과 친목 증진하는 대회되길" 강조

제16회 국민생활체육 강북구청장기 게이트볼대회가 지난 15일 오전 11시 강북구 반2동 주공5단지내 게이트볼 전용구장에서 개최됐다.

강북구 게이트볼연합회(회장 김준경)가 주최하고 강북구청, 강북구생활체육회, 강북구장애인단체연합회, 강북문화원이 후원한 이번 대회에는 명예대회장인 박경수 강북구청장과 김용욱 강북구의회 부의장, 오영식·이수희 당협위원장, 이정식 생활체육협의회장 직무대행, 김정중 시의원, 박성열 구의원을 비롯한 다수의 구의원들과 생활체육 동호인, 장애인단체 회원 등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게이트볼 발전을 위해 애써온 유공자에 대해 강북구청장과 대회장 생활

체육협의회장 표창이 수여된 후 인사말에 나선 김준경 회장은 "게이트볼은 노약자들의 활동이 많은 탓인지 지역사회에서 많은 관심과 협조가 있어 오늘같이 좋은 날 행사를 치루게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하고 "화합과 친목을 중요시하며 오늘을 계기로 예전의 게이트볼 강북구의 명성을 되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경수 구청장은 "우승도 중요하지만 다같이 화합해 승리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인사와 김용욱 부의장도 "화합과 단결을 다지는 종목을 통해 희망과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으며 오영식·이수희 위원장도 축사의 말을 건넸다.